



6세대 그랜저는 젊은 감각의 디자인과 파워풀한 동력성능, 균형잡힌 주행감, 동급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성,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 능동안전사양을 적용해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사진제공 | 현대차

‘젊게 우아하게’ 6세대 그랜저 디자인의 혁신

차체 안벽 비율…미래지향적 디자인 지능형 안전기술 ‘스마트 센스’ 적용

현대차는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미디어를 대상으로 6세대 그랜저(IG) 프리뷰 행사를 개최했다. 그랜저는 1986년 1세대 출시 이후 1992년 뉴 그랜저, 1998년 그랜저 XG, 2005년 그랜저 T G, 2011년 그랜저 HG로 변화를 거듭해 왔고 올해 5년 만에 6세대 그랜저 IG로 거듭났다. 현대차의 간판 모델인 그랜저 IG의 주요 변화를 살펴봤다.

●6세대 그랜저, 우아하고 역동적인 실루엣 매력적

현대 디자인센터 구민철 팀장은 6세대 그랜저에 대해 “새로운 세대의 오너들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차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 했다. 그것이 핵심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그랜저는 한때 한국 시장에서 권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수입차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변화

가 절실했다. 직접 만난 6세대 그랜저는 그 절실함이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먼저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아하고 역동적이며 안정된 실루엣이 확실히 다른 차라는 느낌을 준다. 트렁크 부분이 살짝 당겨진 듯한 디자인에서 그랜저만의 정통성과 익숙한 감성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확실히 미래지향적이다.

구 팀장은 “전장과 전폭, 휠베이스와 전고 등을 엔지니어와의 협업을 통해 완벽한 비례를 갖도록 디자인했다. 고급감이 느껴지면서도 역동적인 6세대 그랜저의 완벽한 비율은 디자인의 목표이자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6세대 그랜저에는 i30에 먼저 적용된 캐스 케이딩 그림이 적용되어 있다. 현대차의 프론트 전략이며, 향후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6세대 그랜저의 전면부를 보면 헤드램프와 그릴을 매우 낮게 포지셔닝해 기존 HG에 비해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후면부 역시 곡선으로 빛나는 면발광 테일램프 양 끝을 연결한 디자인을 통해 하이테

크한 이미지를 담아냈다. 그랜저만의 헤리티지를 유지하면서도 섬세한 디테일로 마감되어 있는데, 수입 럭셔리세단의 자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실내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실내 공간은 수평적 아키텍처를 적용해 넓고 안정적인 느낌을 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립형 터치스크린이다. 최근 수입 럭셔리 세단에서 주로 채용하고 있는 돌출형 스크린을 적용했다. 대쉬보드는 실내를 가로지르는 직선과 곡선을 조화롭게 사용해 외관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볼륨감을 완성해냈다. 이전 세대보다 넓고 안정적인 공간감을 내며, 클래식 시계와 고급 가죽 등을 적용해 현대적이면서도 클래식한 이미지를 준다. 외장 컬러로 글라스펠이라는 새로운 도장 소재와 기술을 적용해 고급감을 더했다.

●스마트 센스 최초 적용

6세대 그랜저의 가장 큰 매력은 지능형 안전 기술인 ‘스마트 센스’의 적용이

다. 현대차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첨단 자율 주행 기술이 대거 적용된다. 스마트 센스에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주행 조향보조 시스템(LKAS), 후측방 충돌회피 지원 시스템(ABSD), 부주의 운전경보 시스템(DAA),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어라운드 뷰 모니터(ABVM) 등이 포함된다.

그 밖의 편의 및 안전 사양도 이전 세대와는 비교를 불허한다. 애플 카플레이와 미러링크 기능이 기본 제공되고, 전동식 세이프트 파워 트렁크도 적용되어 있다. 부스터 사이즈를 증대해 제동감과 제동성능을 개선했고, 통합 주행 모드 제어 시스템에 컴포트, 에코, 스포츠는 물론 스마트 모드까지 추가했다. 공조 시스템에는 미세 먼지 실내 유입 방지 위해 콰비 필터를 적용해 포집 능력을 82%에서 95%로 높였다. 이처럼 6세대 그랜저는 디자인은 물론 디테일한 편의 및 안전사양까지 철저하게 업그레이드됐다.

원성렬 기자 sereno@donga.com



제네시스 브랜드는 대형 럭셔리 스포츠 세단 ‘G80 스포츠’의 최종 가격을 6650만원(3.3 터보 단일 모델만 운영)으로 정하고 공식 판매를 시작해 국내 고급 세단 시장의 변화 주도에 나섰다. 사진제공 | 제네시스

제네시스, 3.3 터보 모델 ‘G80 스포츠’ 뒀다

연비 8.5km/L…가격 6650만원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형 럭셔리 스포츠 세단 ‘G80 스포츠(SPORT)’가 26일 공식 출시됐다. 3.3 터보 단일 모델만 운영되며 가격은 6650만원이다.

기본 모델은 2륜 구동 방식이 적용되며, 전자식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인 HTRAC(에이지트랙), 파노라마 선루프, 최첨단 주행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된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와 뒷좌석 콤포트 패키지, 뒷좌석 듀얼 모니터 등이 선택사양으로 구성된다.

G80 스포츠는 최고 출력 370마력(ps), 최대 토크 52.0kgf·m을 발휘하는 가솔린 람다 V6 3.3 트윈 터보 직분사(GDi) 엔진을 탑재했으며, 1300rpm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된다.

기존 G80의 최상위 트림인 3.8G Di 모델 대비 출력은 17.5%, 토크는

28.4% 높은 수치다. 배기량은 줄었지만 터보 차저 시스템을 적용해 일반 가솔린 모델 대비 월등한 동력성능을 보인다.

연비는 최근 강화된 연비 측정방식에 따라 인증을 받았으며, 2WD 모델은 8.5km/L, AWD 모델은 8.0km/L(모두 19인치 타이어 기준)다.

차량의 조향 안정성과 주행성능을 좌우하는 헝가장치(서스펜션) 역시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기본 적용한 가운데 스프링 강성을 10~15% 증대시키고 댐퍼의 감쇠력을 증대시켜 보다 안정적이고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을 구현했다.

편의 및 안전 사양도 충실하다. 주행 상황별 빔패턴 변동 기능을 갖춘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애플 카플레이 등이 대거 기본 적용됐다.

원성렬 기자

쉐보레 ‘볼트 EV’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

쉐보레는 26일 쉐보레 볼트(Bolt) EV(사진)를 내년 상반기 중에 국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신 전기차 개발 기술과 LG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볼트EV는 합리적인 가격의 장거리 주행 전기차로 최근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383km(238마일)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증 받았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추가 충전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볼트 EV는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대폭 강화한 커넥티비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다. 볼트 EV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와 제품가격은 내년 출시 시점에 맞춰 공개된다.

여행

몬스터·좀비가 도심에…이색 ‘할러윈 파티’ 속으로

숙박업체 ‘할러윈데이’ 이벤트 붐물 테마파크, 좀비·호러 사파리 등 행사

다음주 월요일, 10월31일은 할러윈 데이다. 2월의 밸런타인데이와 함께 해마다 ‘서구 축제일인데 우리가 왜…?’라는 논란이 벌어지는 말 많고 탈 많은 할러윈이지만, 이제 가을파티나 이벤트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소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올해도 이번 주말을 전후해 호텔업계와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할러윈 상품이 등장했다.

말판인형박물관 그래픽 뮤지엄이 한국예술원과 공동작업으로 진행하는 ‘이색 좀비 퍼레이드’는 28일 오후 6시부터 좀비로 변신한 20명의 모델들이 서울 시립미술관 앞, 덕수궁 돌담길, 시청광장을 지나 그래픽 뮤지엄까지 정동야행 축제가 펼쳐지는 서울 중구 정동거리를 행진하는 이색 행사다.

경기영여마을 파주캠프는 29일과 30일 할러윈 이벤트 ‘몬스터 빌리지’를 진행한다. 이벤트기간 동안 야외공연장에서 영미권 뮤지컬배우들의 ‘사랑을 잃은 프랑켄슈타인’이 콘서트홀에서는 영 어뮤즈빌 ‘네버랜드’가 1일 2회 상영한다. 비수기로 접어드는 10월 말에 자리 잡은 할러윈 데이는 호텔들에게도 각종 대형 파티가 열리는 대목이다.

그랜드 엠배서더 서울은 엔터테인먼트 펍 바 그랑-아에서 28일과 29일 이틀



할로윈데이(31일)를 앞두고 테마파크와 호텔 등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행사와 이벤트가 열린다. 올해 좀비를 테마로 한 호러 이벤트로 큰 인기를 모은 롯데월드의 ‘할로윈 나이트메어(왼쪽)와 고객이 참여한 가면가왕이란 아이디어로 꾸민 그랜드 엠배서더 서울의 할로윈 파티.



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할러윈 파티를 진행한다. 올해는 가면을 착용하고 자유롭게 노래실력을 뽐내는 ‘가면가왕’ 콘테스트를 한다.

올해를 끝으로 호텔체인 스타우드 그룹과 결별하는 W 서울 위커킬도 28일과 29일 우바(WooBar)에서 ‘W 할러윈 파티 2016’을 연다. 28일과 29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열리는 심야파티로 올해는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멕시코명절 죽은 자들의 날(Dia De Los Muertos)이 파티의 테마다

그런가 하면 공유숙박 기업 에어비엔비는 할러윈데이 이벤트로 드라큘라 성의 배경인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의 브란 성 숙박체험을 진행한다. 전설적인 뱀파이어의 은신처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험과 함께 소설 ‘드라큘라’의 저자 브람 스토커의 조카손자(데카)를 호스트로 만날 수 있다.

●테마파크 좀비 이벤트의 끝판왕-할러윈 데이 파티

올 여름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대형 테마파크들은 대중문화의 인기코드 좀비를 테마로 한 이벤트로 재미를 봤다. 할러윈데이는 좀비 이벤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다. 롯데월드는 28일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할러윈 나이트메어’를 진행한다. 블러디스 보트, 악령의 파라오, 저주받은 회전목마, 아크 어드벤처 등 각기 다른 호러 콘셉트의 라이드 4종을 즐길 수 있고, 데이 브레이크 비와이 로고 등의 공연도 열린다. 좀비

이벤트 기간 동안 큰 인기를 누리 ‘스트리트 좀비 어택’도 한다.

에버랜드는 29일 할러윈 파티 ‘익스트림 호러나이트’를 진행한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에버랜드 호러빌리지 일대에서 벌어진다. 인기 어트랙션 타이프레스는 할러윈 특별열차 호러 티익스프레스로 변신하고, 호러 사파리에서는 맹수들이 있던 사파리에서 좀비와의 추격전이 벌어진다. 호러메이즈에서는 좀비로 가득한 어두컴컴한 미로를 탐험하며 오감을 자극하는 공포를 체험할 수 있다. 100명의 좀비들이 등장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특별무대에서는 가렌즈 퀵플레이 등 국내 정상급의 인기 클럽 DJ들과 함께 하는 ‘호러 디제잉 파티’가 열린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가을여행주간, 취향 따라 테마 따라 즐긴다

나무 카누·한복 궁나들이 등 인기

24일부터 11월6일까지 진행되는 ‘2016 가을 여행주간’에는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골라 즐길 수 있는 테마여행 프로그램과 체험상품을 만날 수 있다. 아웃도어크루 프로그램에서는 각 지역의 아웃도어 액티비티 전문가가 가이드로 나서 캠핑, 백패킹, 러닝, 라이딩, 등산, 클라이밍 등 다양하고 독특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다. 여행주간 동안에 아웃도어 커리큘럼 참가비를 10% 할인해준다. 한복남의 경북궁 나들이는 한복을 입고 궁 주변과 한옥마을을 체험하는 것이다. 여행주간 동안 한복 대여비 30% 할인이다.

춘천 물레길에서는 우든 카누 투어를 진행한다. 여행주간 동안 20% 할인과 카페이용권, 카누제작 체험장 무료입장의 혜택을 준다. 와바다다(주)의 누리나비는 국내 최초의 이동형 공중하강 체험시설로 여행주간에 할인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경기도 가평 별바라기 마을, 충북 청주 남성 고드미 마을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73개소에서는 체험, 숙박, 특산물 가운데 하나를 2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낙농목장, 관광농원, 농가맛집, 교육농장 등 농촌관광자원 97개소에서도 20% 할인이 제공된다.

여행주간 한정으로 즐길 수 있는 특별철도여행도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 강릉, 정선의 1박2일 여행, 흥천 은행나무 숲



여주 ‘경관선 세종대왕 열차’



서울 ‘경복궁 궁나들이’

으로 떠나는 강원도 ITX-청춘 드림투어, 논산 명제 고택과 백일헌 종택에서 종가음식을 체험하고 논산관광 명소를 탐방하는 문화재청 종가음식체험여행 등이 대표적이다. 으뜸촌 기차여행에서는 농촌체험마을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해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요리한 식사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무주구천동 가을산행을 할 수 있는 거창 숲옛마을, 딸기 잔향만들기 체험과 남이섬 여행이 가능한 양평 수미마을 등의 기차여행도 여행주간에 운영한다. 여행주간 프로그램과 할인혜택 정보는 공식페이지(fall.visitkorea.or.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범 기자

편진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